

사랑하고 존경하는 임목사님과 성광 가족 여러분께

그 간도 평안하셨는지요?

유난히 추운 겨울입니다. 세상을 공포 얼어붙게 만드는 이 한파에 우리의 마음도 얼어버릴까 걱정입니다. 아무리 동장군이 맹위를 떨쳐도 꽃망울을 터트릴 봄은 기어이 오고야 말 것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 때문에 늘 따뜻함과 웃음이 가득한 나날을 보내시기를 기도합니다.

요르단 소식

요즘 들어 요르단의 분위기는 이전과는 사뭇 달라지고 있습니다. 요르단 사람들의 생명줄이라 할 수 있는 주식인 빵값이 오르고, 기름값을 포함하여 물가가 계속 인상되고 있는 상황에서, 요르단 정부에서 난민들을 받아들임으로 막대한 원조를 UN과 여러 나라들로부터 받고 있지만 국민들에게 전혀 혜택이 돌아가지 않고 있고, 중동에서 유일하게 오일이 나지 않는 나라인 요르단 내 몇 군데에서 오일이 발견되었지만 정부에서 그것을 매번 없던 일로 덮고 있다는 소문이 돌면서 이로 인해 국민들이 시위를 벌이고, 심지어는 요르단 압둘라왕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모든 아랍 사람들로 부터 존경을 받는 이라크 대통령이었던 사담 후세인이 실제로는 죽지 않고 살아 있으며, 조만간 그가 이라크 재건뿐만 아니라 시리아 문제도 해결하겠다고 한다는 루머가 돌면서 진위여부에 상관없이 이 곳 사람들이 동요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앞으로 상황을 예의 주시하면서 잘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을 통해 우리에게 지장이 생기지 않도록, 저희들의 신변 안전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타리 소식

저희들은 연초에 미디안 광야에 가서 2박3일간 금식기도의 시간을 가졌고, 한국 아카데미는 날씨가 따뜻해짐에 따라 리더들을 위한 캠프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리더십을 길러주고, ZPS Training course 훈련으로 체력 증진과 공동체 활동으로 협동정신을 키우는데 주력하였습니다. 그리고 한국 아카데미가 정식 학교로 전환되기 전에 학생들의 영어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이번 학기부터는 태권도와 함께 영어 수업도 매일 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음악이나 미술 수업은 토요일에 그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난민 학생들의 가정을 돌아보는 대심방 기간입니다. 이 시간이야말로 힘들고 지친 영혼들에게 봄을 전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이들에게 자연스럽게 생명이 흘러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여러분들의 기도와 후원 덕분에 현재 장단기 사역자 숙소는 느리지만 계속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루 빨리 완공되도록 두 손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늘 관심가져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성광 교회와 성도님들 가정 위에 우리 아버지의 한없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길 기도합니다.

마아 쌀람...

요르단 자타리 난민 캠프에서 이시모/모레 드림

ㄱㄷ 제목:

1. 시리아 난민들에게 지혜롭게 나눔을 전하게 하시고 그들이 속히 주 곁으로 돌아오도록.
2. 요르단의 정치적 상황이 안정되도록, 저희 부부와 동역자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하루 빨리 아랍어에 능통해져서 소통에 어려움이 없도록.
3. 한국 아카데미에 필요한 헌신자들(교사들, 태권도 사범)이 계속해서 이어지도록.
4. 장단기 사역자 숙소가 빨리 완공되어지도록.
5. 미국에 남겨진 두 아이들(다솔, 다해)이 주님의 보호와 인도 속에 각자에 게 주어진 사명의 길을 씩씩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